

신안군, 4차산업 시대 행정 대변혁을 꿈꾸다

유용규 KT 전남전북법인고객본부장 초빙 '디지털 전환' 주제 강의



신안군은 11일 군청 공연장에서 ㈜KT 전남·전북법인고객본부장(유용규)을 초빙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업무에 적용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유용규 본부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플랫폼으로 구축·활용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운영방식과 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효율적이고 향상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였다. 특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광객의 관심 사항 및 이동 경로와 소비

패턴을 파악하며, 관광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관광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AI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과 AR/VR 및 5G 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한 전사 대교 셔틀버스 운행 등 체험형 ICT 관광상품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신안군은 지난 5월 문화도시 및 스마트 관광도시 선도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KT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우량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기록적인 기술을 활용한 지역 화해, 광 세심 기술이 바탕이 된 교량 안전시스템 구축 등 신안군에 접목할 수 있는 Digital Transformation 모델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목포시,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6월 사전홍보·7~8월 단속

목포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8월 30일까지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6월 한달간 사전홍보 및 계

도를 거쳐, 7월~8월 집중감시·단속을 실시하고, 8월에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끈계로 추진한다.

집중호우 등으로 방지시설 등이 파손된 경우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목포문화예술회관, 인형극 '다순구미' 공연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는 6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추억의 인형극장 '다순구미'가 24일 오전 11시에 전석 무료 예약제로 공연된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아이들에게 위로와 재미를 전달하고자 기획한 이번 작품 '다순구미'는 따뜻한

한 동네라는 뜻으로 1970년 목포 달동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다.

달동네의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린 시절 동네 언저리에서 함께 웃고 함께 뛰어놀던 가까머리 우리들의 추억과 마주하게 된다.

꿈꾸듯 펼쳐지는 추억의 인형극장은 총 7개의 에피소드와 다양한

오브제 인형, 추억의 태권브이, 어린이 크기의 관절 인형, 달동네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양장맞은 세트로 어른들에게는 아련한 추억도 선물한다.

이번 인형극을 공연하는 어린이극 전문예술극단 '아미'는 문화예술교육활동, 인형극예술 창작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전문인형극예술단체이다.

목포=김정환 기자

영광군, 청년드림UP 321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 모집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기술 사업화...4백만 원~1천만 원 지원

영광군은 3명 이상의 청년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육성·지원하여 청년 일(1)자리를 창출하는 '청년드림 UP 321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를 2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발굴→육성→지원'의 단계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를 육성하고 청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청년 씨앗 드림(팀당 4백만 원), 청년 새싹 드림(팀당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는 청년 씨앗 드림 5개

팀, 청년 새싹 드림 5개팀을 추가 모집하고 청년 열매 드림 사업은 청년 새싹 드림 사업 완료 후에 추진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3인 이상 청년(만18~45세)으로 구성된 단체(팀)이면 가능하며 사업분야는 문화·복지·사회서비스·6차 산업 등 사업화 할 수 있는 분야로 지원금은 사업추진 시 홍보비 지원 및 시제품 개발, 정보화 및 마케팅 사업,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교육훈련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6월 12일부터 22일 까지로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061-350-5196)에 방문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또한 군은 지난 3월에 1차 모집을 통해 5팀을 선정했으며 지금까지 총 8팀(새싹6, 열매2)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의 아이디어가 영광군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정책자문단 정기회의' 개최...전문가 의견 공유

포스트코로나 대응·후반기 군정운영 방향 제언 청취



무안군은 지난 15일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모색과 김산 무안군수 취임 3주년을 맞아 민선7기 후반기에 이끌어 갈 군정운영 방향 제언을 안건으로 하는 '무안군 정책자문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군정 주요현안 보고, 상반기 코로나19 대응현황, 안건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의에는 김 산 군수와 '무안군 포스트코로나 T/F팀' 단장인 김희필 부군수, T/F팀원 12명이 배석하여 전문가 의견을 함께 공유했다.

윤성호 자문단장의 주제로 진행된 안건 논의에서 자문위원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경제적 변화의 불가피성과 이에 대응할

군의 정책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였으며, 반면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사람 간 관계망기가 위축되는 점을 우려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의 커뮤니티 케어를 더욱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노인인구에 대한 코로나19 대책이 미흡한 점과 청년정책이 하드웨어기반 투자에 집중된 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청년 정책 프로그램과 청년 활동가 양성, 예비 청년으로서의 청소년 육성, 청년인구의 정주를 보장하는 대학생 일자리 발굴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스쳐가는 무안'이 아닌 '머무는 무안'으로의 체류형 관광지 전환을 위한 숙박시설의 확충과 비대면 소비 태백문화 확

산에 대비한 지역특산물의 고품질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제안됐다.

김 산 군수는 "예고 없이 맞이하게 된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롭게 재편될 삶의 방식에 군민 모두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제는 군정방향을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새로운 정책 비전과 방향 정립에 주력하겠다"라며 "오늘 제언해 주신 의견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위기로부터 안전한 행복한 무안군'을 만드는 밑거름으로 잘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정책자문단 정기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각 부서에 전파하여 포스트코로나 대응과 제 발굴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이 도출되면 이달 말경 실과소별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 새로운 정책이 빠르게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 정책자문단'은 지역개발·문화관광·지역경제·복지 등 4개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원, 사회활동가 등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군정책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난 2019년 1월 발족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순맑은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순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